

맞벌이 주말부부의 생활시간 분석*

Time Use Survey of Dual-Career Commuting Couples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교수 문숙재**

송호대학 유아교육과

전임강사 윤소영***

Dept. of Consumer Science and Family Development, Ewha Womans Univ.

Professor : Moon, Sook-Jae

Dept. of Preschool Education, Songho College

Instructor : Yoon, So-Young

〈Abstract〉

In this study, I analyzed dual-career commuting couples time use. Concretely, this study compared the husband with the wife on the becoming a commuter family, the living apart on weekdays. And it examined time use on weekdays and weekends by the time amount of each activities and the ratio of actor on each hour. The survey participants included 131 married people who were dual-career commuting couple and who were maintained separate residence and work place.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eekday separation of the dual-career commuting couples is largely due to career. This kind separation is mostly due to sociostructural labor market factor and individual factor to increasing working women. Second, 94.6%(53) of male participants were resident living apart from their family on weekdays. Third, the most wives mentioned some kind of emotional liberation such as freedom on weekdays. Finally, there was gender difference in the time spent on each activities when dual-career commuting couples are living together and they are apart. Especially the most gender difference on weekdays is household work time and leisure time.

▲ 주요어(Key words) : 맞벌이 주말부부(dual-career commuting couples), 시간량(the time amount), 행위자 비율(the ratio of actor)

1. 문제제기

현대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는 가족의 구조적 다양성과 기능적 변화를 유도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유형의 생활양식을

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가족을 정의할 때 전통적으로 중요시 여겨지던 개념중의 하나인 동거의 개념은 그 중요성이 쇠퇴되어 가고 취업이나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비동거 가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나타난 맞벌이 부부의 증가현상은 맞벌이 주말부부라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탄생시키게 되었다.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직장을 찾을 수 없을 때 과거에는 한 배우자(대부분 아내가 해당됨)가 직장을 포기하고 다른 배우자(대부분 남편이 해당됨)와 함께 동거하는 것을 당연시했으나, 오늘날에는 부부 각자가 원하는 직장을 위해서 비동거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다른 비용을 치르더라도 개인의 직업적 가치관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경향에서 기인한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현상과 그들의 생활 실태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고 있으며, 맞벌이 주말부부들도 이러한 관심 범주내에 속해 있다. 가족구조상으로 볼 때, 맞벌이 가족과 맞벌이 주말 가족은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해 자녀양육과 가정경제를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말가족의 경우 부부가 떨어져 사는 생활양식으로 인해

* 본 연구는 한국가정관리학회의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으며, 한국가정관리학회 2002년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주저자 : 문숙재 (E-mail : sjmoon@ewha.ac.kr)

*** 교신저자 : 윤소영 (E-mail : soyoun@songho.ac.kr)

서 생기는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적 관계는 일반적인 맞벌이 부부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이기숙, 1999).

주말부부들은 함께 동거하는 날과 비동거하는 날을 반복하는 동안에 생활이 구분될 것이며, 그에 따른 시간사용의 내용도 다를 것이다. 가족들과 떨어져 있다가 주말이나 휴일에 가족들과 만나서 생활할 때 활동영역이나 시간사용은 차이가 있을 것이며,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심리적인 거리감이나 친밀감 부족 등을 메우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배우자와 동거하는 남편의 경우 대부분의 가사노동 영역을 아내의 도움을 받거나 책임을 위임하는 반면, 배우자와 떨어져 생활하는 기간동안 혼자사는 남편들은 가사노동을 훈련하고 실행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Gerstel & Gross, 1984; 채옥희, 1998)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측면은 맞벌이 주말부부로 살아가고 있는 개인들의 생활시간을 조사하여 분석할 수 있다. 가족들과 떨어져서 생활하는 요일과 함께 동거하는 요일을 선택해서 그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그 실태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맞벌이 주말부부들을 대상으로 주말부부의 생활 특징을 알아보고 시간조사분석을 통해 가족들과 떨어져 사는 평일과 함께 동거하는 주말의 시간사용의 내용을 비교해 본다.

II. 맞벌이 주말부부의 형성 및 특성

맞벌이 주말 부부를 정의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시되는 요소는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지를 가진다(Gerstel과 Gross, 1984)는 것이다. 별개의 거주지 이외에 분리 거주 기간도 맞벌이 주말부부의 개념에 포함되는데(채옥희, 1998; 이기숙, 1999; 김은경, 1999, 2001), 연구자에 따라 일주일에 최소한 2일에서 4일 떨어져 지내는 부부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맞벌이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기 위해 일정기간 떨어져 사는 경우를 통근가족(柚井孝子 외 3인, 1993; 채옥희, 2002에서 재인용), 별거가족(채옥희, 1998), 맞벌이 주말부부(또는 맞벌이 주말가족)(이기숙, 1998; 옥경희, 1999; 김은경, 1999, 2001) 등으로 표현하며, 용어해석상의 불일치로 Commuter marriage(채옥희 2002)로 사용하기도 한다.

맞벌이 주말부부의 형성을 촉진하는 요인은 노동시장의 경직성(김태현·박숙자, 1992; Gerstel & Gross, 1984), 여성의 자아실현 욕구 증대(이기숙, 1999; 채옥희, 2002), 자녀교육문제(이기숙, 1999; 채옥희, 2002) 등을 들 수 있다. 즉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노동시장이 더욱 경직되면 취업기회는 더욱 어렵고 경쟁적 이어서, 그 결과로 부부 각자는 직장을 같은 장소에서 구하기가 힘들어진다. 또한 개인적인 측면에서 여성의 자아실현 욕구는 교육수준 증가, 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 현상, 개인중심의 사고와 가치관 증가 등으로 맞벌이 주말 부부 형성에 긍정적인 조건을 제공하게 된다. 자녀교육이 맞벌이 주말부부의 형성을 촉

진하는 경우는 우리 나라의 경우 행정 및 교육기관이 대도시, 특히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대도시에 아내가 머무르고 남편이 통근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김태현·박숙자, 1992; 김경은·정옥분, 1998).

맞벌이 주말부부는 부부 각각이 자신의 직업에 대한 강한 동기가 있고, 아내의 직업육구에 대한 남편의 지지, 높은 수입, 지리적 근접성, 그리고 자녀양육의 책임이 최소일 때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된다(Gerstel & Gross, 1984). 이들의 장점은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경력을 추구할 수 있고, 자신의 일에 좀더 집중할 자유가 있다는 점 등이 있으며, 단점은 부부가 일상생활을 나누어 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친밀감이 줄어들고, 함께 했을 때 상대방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기 쉬우며, 친구나 친지와 의 접촉기회가 줄어들다는 것이다.

맞벌이 주말가족도 맞벌이 가족의 한 형태이므로, 일반적인 맞벌이 부부와 그 특성들을 비교 연구하는 것도 맞벌이 주말가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가족구조상으로 볼 때, 맞벌이 주말가족과 맞벌이 가족은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해 자녀양육과 가정경제를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주말가족의 경우 부부가 떨어져 사는 생활양식으로 인해서 생기는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적 관계는 일반적인 맞벌이 부부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낼 것이다. 특히 맞벌이 주말부부의 남편과 아내는 일주일 중 떨어져 있는 동안 가사노동의 책임이 각자에게 있으며, 특히 남편들의 가사노동(구체적으로 식사해결방법이나 세탁방법 등)에의 참여나 시간은 동거하는 맞벌이 부부의 남편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채옥희, 2002).

한편, 맞벌이 주말부부로 살아가고 있는 남편과 아내의 의식이나 실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이기숙(1999)의 연구에서는 맞벌이 주말가족의 장점으로 들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에 따라서 차이를 나타냈다. 남편은 직업에 충실할 수 있다는 것을 중요한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아내는 경제적 여유와 함께 개인의 자유시간을 중요한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결국 맞벌이 부부이지만 주말부부의 특징을 나타내는 남편과 아내들은 구체적인 생활실태에 있어서 그들이 함께 생활하는 주말과 각자 떨어져 생활하는 주중의 시간사용의 형태나 양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맞벌이 주말부부의 생활시간구조를 파악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맞벌이 주말부부의 형성요인 및 생활실태는 남편과 아내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맞벌이 주말부부의 시간사용은 평일과 주말(가족들과의 동거유무)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맞벌이 주말부부의 평일과 주말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의 시간대별 활동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2.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맞벌이 주말부부의 생활실태와 시간사용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맞벌이 주말부부로, 그 범위를 '현재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근무지와 거주지를 가진' 기혼 남녀로 제한하였다. 이에 전국을 대상으로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을 통해 맞벌이 주말부부로 살아가는 남녀에게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지와 하루 24시간을 10분 단위로 나누어 구성한 시간일지표(time diary)를 배포하였다. 조사대상자 개인은 최근 가족원과 떨어져 지내는 평일과 가족원과 함께 지내는 휴일 등 2일간의 시간일지표를 기록하였다. 조사는 2002년 8월 26일부터 9월 7일까지 진행되었으며 1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부실기재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131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SAS 통계 package(Ver. 8.01)가 사용되었다.

분석방법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생활시간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조사대상자들의 생활실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x2검증을 실시하였다. 생활시간에 대한 시간량 분석은 각 활동에 대한 평일과 휴일의 평균 사용시간을 구해 t-test를 통한 성별차이를 검증하였으며, 시간대 분석은 성별로 구분하여 시간대별 각 활동의 행위자 비율을 구해서 이를 그래프에 표시하여 그 경향을 파악하였다.

3. 시간변수의 정의

모든 조사대상자는 자신의 24시간의 시간일지표를 평일과 주말로 나누어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기입하였으며, 이는 after-coded 방법으로 코딩되었다. 각 생활시간영역은 통계청의 [1999 생활시간조사]의 생활시간분류체계에 근거하여 개인유지시간, 일시간, 가사노동시간, 참여 및 봉사활동시간, 교제 및 여가활동시간으로 구분된다(표 1 참조).

<표 1> 시간변수의 정의

생활시간	정의
개인유지	수면, 식사 및 간식, 개인관리, 건강관리(의료적), 개인유지 관련 이동
일	고용된 일·자영업, 무급가족종사일, 자가소비를 위한 농업·어업 일, 구직활동, 일관련 물품구입, 기타 일관련 행동, 출·퇴근 및 그 외 일관련 이동
가사노동	가정관리(음식준비 및 정리,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집 관리,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가정경영, 기타 가사일, 가정관리 관련 이동)+가족보살피기(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배우자 보살피기,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그 외 가족 보살피기, 가족 보살피기 관련 이동)
참여, 봉사활동	이웃 및 친분있는 사람돕기, 지역공동체활동, 사회참여 활동, 자원봉사, 참여 및 봉사활동 관련 이동
교제 및 여가활동	교제활동, 대중매체이용, 일반인의 학습, 종교활동, 관람 및 문화적 행사참여, 스포츠·집 밖의 레저활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관련 물품구입, 기타 여가관련 활동, 교제활동 및 그 외 여가활동관련 이동

IV. 분석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N=131)

변 수		빈도	백분율(%)
성 별	남 자	56	42.7
	여 자	75	57.3
연 령	20 대	90	68.7
	30 대	41	31.3
학 력	고졸이하	7	5.3
	전문대졸	45	34.4
	대 졸	64	48.9
	대학원졸	15	11.5
직 업	피고용 기능공	38	29.0
	자영(상공업,기술자,서비스업)	7	5.3
	사 무 직	48	38.6
	전문관리직	38	29.0
연속변수		Mean	S.D.
연 령 (세)		28.79	2.4
결혼지속기간 (개월)		26.46	17.7
주말부부기간 (개월)		14.4	12
평균 비동거일수 (일/1주)		5.27	10.2
평균 동거일수 (일/1주)		1.7	11.9
자 녀 수 (명)		0.78	0.79
자녀나 이 (세)	첫 자 녀	2.31	1.44
	막내자녀	1.54	1.14
월수입 (만원)	본인소득	184.34	84.1
	가족전체소득	382.14	185.6

2. 맞벌이 주말부부의 형성요인 및 생활실태

조사대상자인 맞벌이 주말부부의 형성동기는 직장을 같은 장소에서 구하기가 힘들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구조적인 노동시장의 요인과 개인적인 여성 취업의 증가 요인의 복합적인 영향력으로 평가된다.

주말부부 가운데 가족과 떨어져 다른 지역에 혼자 지내는 배우자는 남성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 응답자의 94.6%(53명)가 본인이 가족과 다른 지역에 거주한다고 응답했으며, 여성 응답자의 53.3%(40명)가 배우자인 남편이 가족과 다른 지역에서 혼자 거주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자녀가 있는 경우 남편(2.6%)보다는 아내(37.7%)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연관지어 볼 때, 맞벌이 주말부부의 경우 남편은 혼자 가족들과 떨어져 거주하며 아내는 다른 가족원, 특히 자녀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내 이외의 가족관계적 역할(예를 들어 엄마, 며느리 등)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맞벌이 주말부부의 생활실태

(단위:빈도(%))

변 수	성 별		χ ²	
	남편	아내		
주말부부로 살게 된 동 기	직장이 멀리 있어서	54(96.4)	74(98.7)	1.399
	자녀교육때문에	1(1.8)	0(0)	
	기 타	1(1.8)	1(1.3)	
	전 체	56(100.0)	75(100.0)	
다른 지역에 혼자 사는 배 우 자	본 인	53(94.6)	35(46.7)	33.467***
	배 우 자	3(5.4)	40(53.3)	
	전 체	56(100.0)	75(100.0)	
자녀양육자	본 인	1(2.6)	14(37.8)	34.288***
	배 우 자	32(82.1)	6(16.2)	
	기 타	6(15.4)	17(45.9)	
	전 체	39(100.0)	37(100.0)	

*** p < .001

@ 무응답과 비해당으로 결측치가 발생함

조사 대상자들을 성별로 나누어 분석해 보면 주말부부의 실태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아침, 점심, 저녁의 식사를 해결하는 방법(표 4)에서 남녀 모두 점심에는 직장 구내 식당에서 사먹지만, 아침과 저녁은 남편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 식사에 남편들은 굶거나(44.6%) 직장 구내 식당에서(32.1%) 아침식사를 하는 반면, 아내들은 굶거나(28%) 직장 구내식당에서(25.3%) 해결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빵, 과자 스낵(26.7%)이나 밥으로 준비해 먹는(17.3%) 경우가 44%나 되었다. 특히 저녁식사의 경우에 남편의 84%는 직장 구내식당(53.6%)이나 인근 식당(30.4%)에서 매식을 하였으며, 아내의 50.7%는 직접 집에서 준비해서 식사를 하였다.

<표 4> 성별에 따른 식사해결방법

(단위:빈도(%))

식사해결 방법	아침		점심		저녁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아내
굶는다	25(44.6)	21(28.0)	0(0)	2(1.5)	0(0)	2(1.5)
집에서 밥으로	5(8.9)	13(17.3)	0(0)	0(0)	6(10.7)	38(50.7)
인근 식당	2(3.6)	0(0)	7(12.5)	10(13.3)	17(30.4)	8(10.7)
배달	0(0)	0(0)	0(0)	1(1.3)	2(3.6)	3(4.0)
구내식당	18(32.1)	19(25.3)	49(87.5)	62(82.7)	30(53.6)	21(28.0)
빵/과자 /스낵	5(8.9)	20(26.7)	0(0)	0(0)	0(0)	0(0)
생 식	1(1.8)	1(1.3)	0(0)	0(0)	0(0)	1(1.3)
기 타	0(0)	1(1.3)	0(0)	0(0)	1(1.8)	2(2.7)
전 체	56(100.0)	75(100.0)	56(100.0)	75(100.0)	56(100.0)	75(100.0)
χ ²	13.458*		2.346		29.499***	

* p < .05 *** p < .001

<표 5> 성별에 따른 세탁방법

(단위:빈도(%))

변 수	성 별		χ ²	
	남편	아내		
세탁방법	손수 직접 한다	34(60.7)	58(78.4)	11.671**
	인근 빨래방	9(16.1)	12(16.2)	
	주말에 집에 가지고 감	13(23.2)	3(4.1)	
	기 타	0(0)	1(1.4)	
	전 체	56(100.0)	74(100.0)	

** p < .01

또한 세탁물 세탁방법(표 5)에서도 남녀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편들은 손수 직접(60.7%) 하기도 하지만 주말에 집에 가지고 오는(23.2%) 경우도 많았다. 반면 아내들은 대부분 손수 직접(78.4%) 하였다.

이와 같이 식사 및 세탁물 처리 방법이 주말부부의 성별에 따라 다른 결과는 그들의 시간사용 결과와도 밀접히 관련된다. 이에 다음의 시간분석에서는 남녀 성별에 그 차이를 분석한다.

조사대상자인 맞벌이 주말부부들은 주말부부로 살아가는데 장점과 단점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 대해 각각 보고하였다(표 6). 주말부부로 살아가는 장점은 남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말부부 남편은 장점이 없거나(32.1%) 경제적 안정(30.4%)을 많이 제시하였으나, 주말부부 아내는 자유로운 느낌(36.0%)을 가장 많이 제시하였다. 주말부부의 단점으로는 남편과 아내 모두 배우자와의 친밀감 형성이 잘 되지 않는 이유를 가장 많이 제시하였으며, 다음으로 자녀양육 및 자녀 교육의 문제점 등을 보고하였다.

<표 6> 성별에 따른 주말부부의 장점과 단점

(단위:빈도(%))

항 목	남 편	아 내
	가사노동 감소	0(0)
경제적 안정	17(30.4)	8(10.7)
개인적활동 증가	2(3.6)	7(9.3)
애정 돈독	8(14.3)	14(18.7)
자유로운 느낌	11(19.6)	27(36.0)
없 음	18(32.1)	16(21.3)
전 체	56(100.0)	75(100.0)
χ ²	15.070 **	
자녀양육 및 자녀교육	13(23.2)	21(28.0)
집안일(주택관리 및 가정관리)	7(12.5)	15(20.0)
자신을 위한 시간이 없음	5(8.9)	5(6.7)
배우자와 친밀감 형성이 잘 안됨	30(53.6)	28(37.3)
없 음	1(1.8)	6(8.0)
전 체	56(100.0)	75(100.0)
χ ²	5.798	

** p < .01

3. 맞벌이 주말부부의 시간량 분석

맞벌이 주말부부의 평일과 주말의 시간사용을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맞벌이 주말부부가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평일의 경우 남편과 아내는 교제 및 여가시간을 제외한 개인유지시간, 일시간, 가사노동 시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평일의 교제 및 여가활동에는 남편과 아내 각각 2시간 32분, 2시간 39분으로 비슷하게 사용했으나, 개인유지활동에는 남편(10시간 5분)이 아내(9시간 42분)보다 평균 23분 더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고용된 일이나 자영업활동에 남편 9시간 59분과 아내 8시간 57분, 그리고 가사노동활동에는 남편 3분과 아내 40분으로 나타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특히 주중에 혼자 지내는 남편의 경우 가사노동의 참여시간이 매우 낮은 것은 일주일에 며칠동안 혼자서 지내면서 가사노동의 책임자이며 담당자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대부분의 가사노동을 사회화에 의존하거나 주말에 가족이 있는 본가로 가져오기 때문(표 4와 표 5 참조)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주말의 경우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인다. 맞벌이 주말가족의 남편과 아내는 개인유지활동, 가사노동활동, 그리고 교제 및 여가활동에서 차이를 나타내지만, 일을 하는 시간은 남편과 아내 모두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차이가 명확하지 않다.

특히 평일과 주말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평일에 남편과 아내 모두 가사노동 활동에 1시간 미만 참여하였던 반면, 주말에는 남편의 경우 1시간 34분, 아내의 경우 3시간 39분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남편의 평일과 주말의 차이는 통계청의 [1999 생활시간조사] 결과¹⁾에서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이 남편의 경우 평일 35분, 토요일 38분, 일요일 50분으로 요일에 상관없이 1시간 미만으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될 수 있다. 이는 맞벌이 주말부부의 남편이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동안은 가사노동에의 참여도가 낮지만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시간동안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가족에 대한 소홀함을 보상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사노동에의 참여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柚井孝子 외 3인(1993; 채옥희, 2002에서 재인용)의 연구에서도 commter marriage 남편들이 본가에 가거나 동거할 때 부인을 도와주고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또한 맞벌이 주말부부의 평일과 주말의 교제 및 여가시간의 남녀 차이가 구분되어 나타났다. 즉 평일의 교제 및 여가활동 시간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주말의 가족들

과 함께 지내는 시간동안 남편의 교제 및 여가활동 시간은 6시간 18분으로 아내의 4시간 44분보다 훨씬 큰 증가를 보인다. 맞벌이 주말부부의 주말동안 교제 및 여가시간은 통계청 자료의 맞벌이 주말부부의 일요일 시간량과 비슷하게 나타났다²⁾. 즉 맞벌이 부부는 일요일에 교제 및 여가활동을 위해 남성은 6시간 53분, 여성은 4시간 35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맞벌이 주말부부의 남편과 아내의 주말동안의 교제 및 여가활동은 맞벌이 동거부부와 다르지 않으며, 남편들이 아내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자유롭게 보내고 있다고 평가된다.

개인유지활동에서는 평일과 주말 모두 남편이 아내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청 자료의 맞벌이 부부의 결과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³⁾.

맞벌이 주말부부는 평일과 주말 모두 참여 및 봉사활동 시간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9 생활시간조사 결과에서 맞벌이 부부의 참여 및 봉사활동시간이 평일과 휴일에 평균 4분 정도⁴⁾인 것과 비교해 볼 때, 본 조사 대상자인 맞벌이 주말부부는 참여활동 및 봉사활동을 위한 시간이 훨씬 더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표 7> 맞벌이 주말부부의 성별 시간량 분석

(단위:시간)

요일	활동	개인유지		일		가사노동		교제·여가		
		N	M	S.D.	M	S.D.	M	S.D.	M	S.D.
평일	성별	N	M	S.D.	M	S.D.	M	S.D.	M	S.D.
	남편	56	10.08	1.17	9.99	1.74	0.05	0.15	2.53	1.53
	아내	75	9.70	0.95	8.95	1.15	0.78	0.87	2.65	1.60
	전체	131	t=2.09*		t=3.87***		t=-7.08***		t=-0.41	
주말	성별	N	M	S.D.	M	S.D.	M	S.D.	M	S.D.
	남편	56	13.46	1.71	0.01	0.06	1.56	1.26	6.03	3.17
	아내	75	12.26	1.38	0.09	0.52	3.65	2.48	4.74	2.82
	전체	131	t=4.4***		t=-1.31		t=-6.28***		t=2.45*	

* p < .05 *** p < .001

+ 본 조사에서는 참여 및 봉사활동시간이 전혀 응답되지 않음

1) 통계청의 「1999 생활시간조사」는 전국 약 17,000가구의 만 10세 이상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1999년 9월 2일부터 14일까지 조사한 것으로, 하루 24시간을 10분 단위로 나누어 구성된 시간일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원자료 중 기혼남녀가 모두 취업한 맞벌이 부부의 평일(N=13,680) 및 토요일(N=4,344), 일요일(N=4,274)의 시간일지수 22,258개를 분석한 결과, 1일 평균 가사노동활동에 남성의 경우 평일 35분, 토요일 38분, 일요일 50분, 여성의 경우 평일 3시간 53분, 토요일 4시간, 일요일 4시간 17분으로 나타났다.

2) 통계청의 「1999 생활시간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맞벌이 부부의 남편과 아내의 시간일지를 분석한 결과, 1일 평균 교제 및 여가활동시간은 남성의 경우 평일 4시간 20분, 토요일 4시간 52분, 일요일 6시간 53분, 여성의 경우 평일 3시간 5분, 토요일 3시간 26분, 일요일 4시간 35분으로 나타났다.

3) 통계청의 「1999 생활시간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1일 평균 개인유지시간은 남성의 경우 평일 10시간 10분, 토요일 10시간 10분, 일요일 10시간 50분, 여성의 경우 평일 9시간 46분, 토요일 9시간 52분, 일요일 10시간 31분으로 나타났다.

4) 통계청의 [1999 생활시간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평일, 토요일, 일요일의 참여 및 봉사활동시간의 Mean값은 0.06~0.07시간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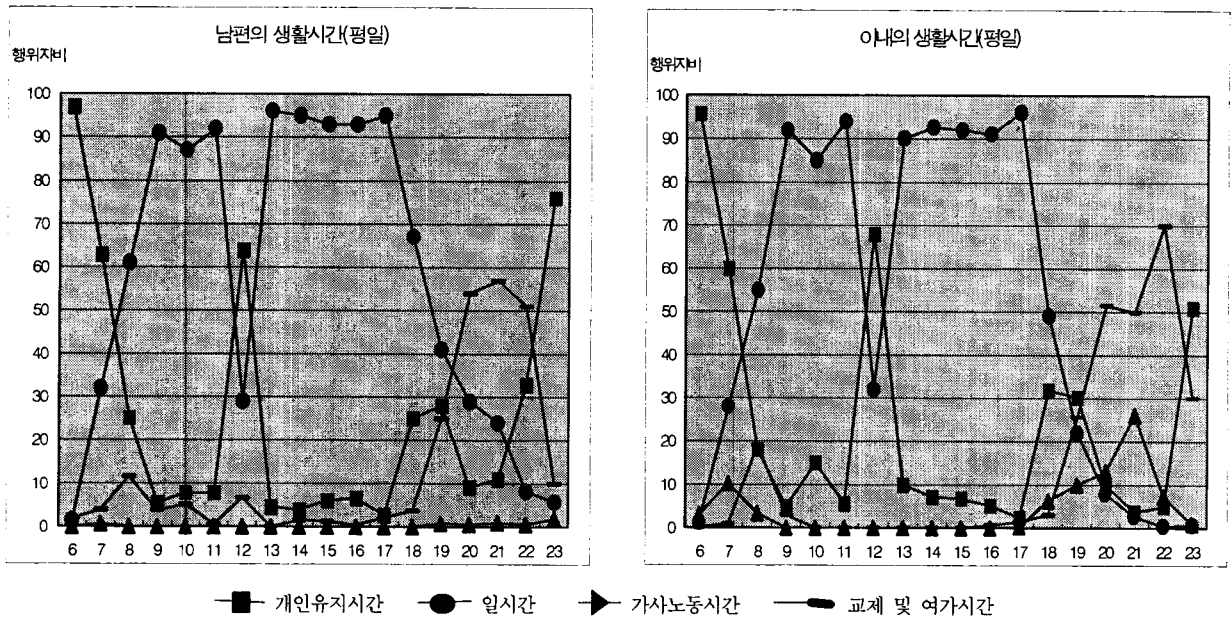
4. 맞벌이 주말부부의 시간대 분석

맞벌이 주말부부의 평일과 주말의 생활시간을 시간대별로 분석해 본 결과는 <그림 1>,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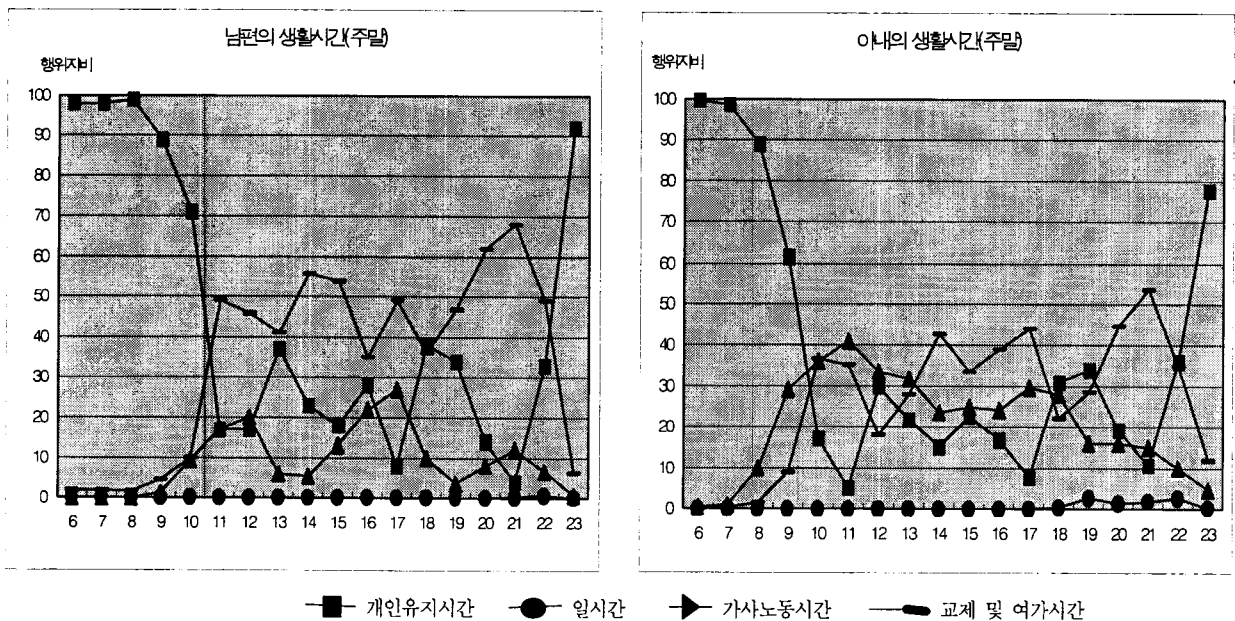
평일에 맞벌이 주말 부부의 남편과 아내의 일시간은 거의 비슷한 참여율을 나타내지만, 가사노동시간과 교제 및 여가시간은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편은 모든 시간대에 걸쳐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비율이 비슷하게 낮았으나, 아내들은 저녁 9시를 전후해서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지며, 다음으로 오전 7시를 전후해서 다시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는

아침식사 및 저녁식사준비,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가사노동 활동시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남편의 경우 저녁 9시를 전후한 시간대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보이는 활동은 교제 및 여가활동이다. 아내들은 9시가 지나고 10시경에 교제 및 여가 활동시간에 참여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같은 시간대인 11시 경에 취침 등의 개인유지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비율이 아내에 비해 남편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맞벌이 주말부부의 경우 평일에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 일하는 시간은 비슷한 시간구조를 가지지만, 가사노동시간에 여성의 참여율이 더 높고 그로 인해 교제 및 여가시간과 개



<그림 1> 맞벌이 주말부부의 평일 시간대 분석



<그림 2> 맞벌이 주말부부의 주말 시간대 분석

인유지시간의 시간구조가 다르게 나타났다.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주말에 맞벌이 주말부부의 남편과 아내의 일시간을 제외한 개인유지시간, 가사노동시간, 교제 및 여가시간에 있어서 참여자의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개인유지시간은 평일과 비교해 아침 늦은 시간까지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남편과 아내 모두 저녁 9시 이후 참여율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동안 남편의 가사노동활동에의 참여는 증가하여 평일과 비교해 거의 모든 시간대에서 그 참여율이 높았다. 특히 오후 5시, 낮 12시, 저녁 9시 경을 전후해서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주말동안 남편은 점심식사와 저녁식사를 준비하는 시간대에 가사노동에의 참여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모든 시간대에서 아내의 가사노동활동 참여 비율은 남편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아침 7시 이후 계속 높은 비율의 참여율을 지속적으로 나타내었다. 남편과 아내의 참여자의 비율이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활동은 교제 및 여가활동으로, 남편들은 오전 10시 이후 계속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나타내는 반면, 아내들은 그보다 낮은 비율을 보이다가 저녁 9시 경을 전후로 높은 참여율을 보인다.

주말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동안 주말부부는 개인유지시간을 평일보다 연장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남편들보다 아내들이 가사노동에 꾸준히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아내들은 저녁식사 이후 TV보기 등의 여가활동시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반면 남편들은 낮 시간동안 교제 및 여가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간대별 분석을 통해, 맞벌이 주말부부의 남편과 아내의 시간사용 구조를 보다 자세히 파악할 수 있었으며, 특히 주말동안 부부가 함께 지내면서도 활동을 함께 하기보다는 남편과 아내가 각자 따로 활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근무지와 거주지가 다른 맞벌이 주말부부를 대상으로 주말부부의 형성요인 및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성별 및 요일에 따른 생활시간구조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조사에서 분석된 131명의 주말부부는 부부가 직장을 같은 장소에서 구하기가 힘들어 떨어져 살며,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내는 배우자는 남성이 더 많았다. 주중에 떨어져 있는 시간동안 식사준비와 세탁물 처리 방법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수행이 다르게 나타났다. 즉 남편들은 혼자서 생활하는 동안 식사나 세탁물 처리를 사회화나 본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나, 아내들은 자녀와 함께 살거나 다른 가족원과 함께 살면서 여전히 스스로 집안일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들은 떨어져 지내는 동안 자유로운 느낌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주말부부의 평일과 주말의 시간사용구조를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남편과 아내의 활동영역별 시간사용은 차이가

나타났다. 개인유지시간은 평일과 주말 모두 남편이 아내보다 더 많았으며, 일시간은 주말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평일에만 나타나며 그 차이도 평일에 남편이 더 많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활동에서 평일에는 남편과 아내 모두 1시간 미만의 참여를 보이지만 성별 차이는 나타났다. 그러나 주말에 아내의 가사노동 참여시간의 증가는 물론 남편들의 참여시간도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주말의 남편 참여도는 다른 맞벌이 부부와 비교해 볼 때 더 높았다. 교제 및 여가활동에 있어서 평일에는 남녀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주말에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동안에는 다른 맞벌이 부부와 같은 경향을 보여, 남편들의 교제 및 여가활동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 및 봉사활동시간은 전혀 보고되지 않았는데, 이는 다른 맞벌이 부부와 비교해 볼 때 더 많은 시간적인 제약과 부족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시간량 분석을 통해 맞벌이 주말부부가 일반적인 맞벌이 부부와 달리 평일과 주말에 따라 시간구조를 다르게 나타내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가사노동활동과 관련하여 남편들의 평일과 주말의 시간구조가 구분된 사실이 특징적이다.

각 활동에 대한 참여자 비율을 파악하여 시간대별로 분석한 결과, 평일의 남편과 아내의 생활시간구조에서 가사노동시간과 교제 및 여가시간 영역에서 가장 많은 차이를 나타났다. 주말동안 남편과 아내는 개인유지시간을 평일보다 연장하며, 남편들보다 아내들이 좀더 일찍부터 가사노동시간에 참여하고 꾸준히 남편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간분석을 통해 맞벌이 주말부부의 시간사용에서 몇 가지 측면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편들이 생활 주체자로서 자립하여 생활하기 위한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편들이 평일에 혼자서 지내게 되므로 의식주와 관련된 가사노동영역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기대와는 달리 남편의 가사노동에의 참여도가 낮게 나타났다.

둘째, 주말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기간에 가족관계나 부부관계의 친밀감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활동영역에서 함께 참여하도록 해야한다. 주말부부 남편과 아내가 함께 생활하는 주말동안에도 남편과 아내의 생활구조가 다른 현상을 확인했는데, 특히 가사노동활동과 교제 및 여가활동의 시간구조가 구분되었다. 직업상의 이유로 떨어져 있는 시간을 제외하고 가족들이 함께 있는 시간동안 집안일이나 여가활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주말부부 이외의 가족관계에서도 부부의 관계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주말부부로 살아가는 생활의 장점에 대해 남편과는 달리 아내들은 자유로운 느낌을 제시하였다. 이는 아내들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자유로운 느낌을 갖지 못하는 경향이 많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따라서 다른 가족관계에 있는 부부들도 남편과 아내에 따라 부부관계의 질을 확인하고 그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접수 일 : 2003년 1월 15일
- 심사 일 : 2003년 1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3년 3월 29일

【참 고 문 헌】

- 김경은·정옥분(1998). 주말 부부 어머니의 결혼적응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1). 35-49.
- 김은경(1999). 맞벌이 주말부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1). 25-43.
- 김은경(2001). 사회적 지원이 맞벌이 주말부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3). 1-15.
- 김태현·박숙자(1992). 한국의 비동거가족연구. *가족학논집* 4. 45-74
- 육경희(1999). 맞벌이 주말부부의 부모역할 갈등,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1). 45-66.
- 이기숙(1999). 맞벌이 주말가족의 성격분석을 위한 시론,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1). 1-23.
- 조성은·문숙재(1998). 기혼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 유형에 관한 사례 연구 -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 *대한가정학회지* 36(10). 35-48.
- 채옥희(1998). Commuter Marriage 가정경영 실태와 문제. *대한가정학회지* 36(9). 153-166.
- 채옥희(2002). Commuter Marriage 남편의 가사노동 수행실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215-225.
- Gerstel, N. & Gross, H.(1984). *Commuter Marriage: A study of work and family*. New York; Guilford press.
- 통계청(1999). 199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